

건강 칼럼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 설득 아닌 분리불안증 치료 고려해야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국면 속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체 등교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성상 비대면 수업으로 온전히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어린이들의 경우 등교를 완강히 거부하며 부모 속을 태우고 있다는 점이다. 소아불안증의 하나인 등교 거부 증상이 바로 그것이다.

학교에 가는 것을 두고 어느 정도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의 경우 학교 가는 것에 대해 과도한 불안 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심리적인 불편으로 등교를 회피하는 것을 등교거부라고 부른다. 등교거부는 분리불안증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분리불안장애란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



신강식

휴한의원 분당점

과 떨어지는 것을 심하게 불안하게 여기는 증상을 말한다. 분리불안장애는 유치원에 입학한 아동, 개학 후 오랜만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

그렇다면 분리불안장애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불안과 공포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성장 마숙을 꼽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편도체가 예민해 불안

과 공포에 민감한 것이다.

상기할 점은 등교거부가 무조건 분리불안장애와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분리불안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이 등교거부증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등교거부증이 나타나는 모든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대단 연령이 낮은 아이들의 등교거부는 분리불안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세

이하 아동에게서 등교거부가 관찰된다면 설득, 꾸중보다 분리불안증 발병 여부를 체크하고 치료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분리불안증 진단은 병력 청취 후 아동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병력 청취 내용에는 주된 증상의 진행 과정, 가족 역동 및 가족력, 환아의 발달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아동과 부모의 상호 작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단 시 DSM-V 진단 지침에 맞춰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이와 더불어 등교거부 관련 다양한 원인 질환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

진단 결과 분리불안증으로 확인됐다면 불안, 공포의 원인 그리고 동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강제적인 치료보다는 편도체의 성장을 도와 스스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대한민국 백신 허브 이뤄지나

한국과 미국 간에 개최된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코로나19 백신이었다. 실제로 회담 의제에 백신 협력도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공식적인 언급도 나왔다. 한국군 5만 명에게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미국과 자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인병을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두 정상은 백신 협력 논의는 단순한 백신 집중을 넘어섰다.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함께 기여하자는 데 초점을 두었다. 미국의 백신 기술과 원료 공급 그리고 한국의 생산 능력을 합쳐 세계적인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골자인 셈이다. 한미 두 나라의 백신 수요에 대한 대비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의 백신 공급 확대에 협력하는 것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과학자와 전문가, 공무원들로 이뤄진 고위급 전문가 그룹도 출범한다.

백신이 필요할 때 당겨쓰고 같은 '백신 스와프' 보다,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미국의 주요한 백신 회사는 이미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백신의 생산을 한국에서 진행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두 나라의 협력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또 기술 이전까지 포함할 것인가이다.

정상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한미 두 나라 복지부 장관도 세부적인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을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량을 늘릴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야호로 대한민국 백신 허브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은 없나

지역방송 활성화가 절실하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방송의 역할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방송 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역방송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전국 9개 민영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1천74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급감했다. 결국 지난 2020년에는 701억 원으로 10년 동안에 반 토막이 났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매체는 지역방송이다.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의 논리에 의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이 살아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함께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방소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런 만큼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절실하다. 그리고 공론장으로서 지역방송의 위상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광역별 방송 정책은 물론 다양한 지역방송 정책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챙겨야 할 때이다. 특히 대담하고 상상력 있게 새로운 패러다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방송에 여전히 요구되는 지역성 강화와 시장에서의 자체 경쟁력 확보는 지역방송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합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지역방송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부터 열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플로이드 사망 1주기, 뉴욕 거리 행진하는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기인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위대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을 떠올리며 행진하고 있다.

“한 학년 끝, 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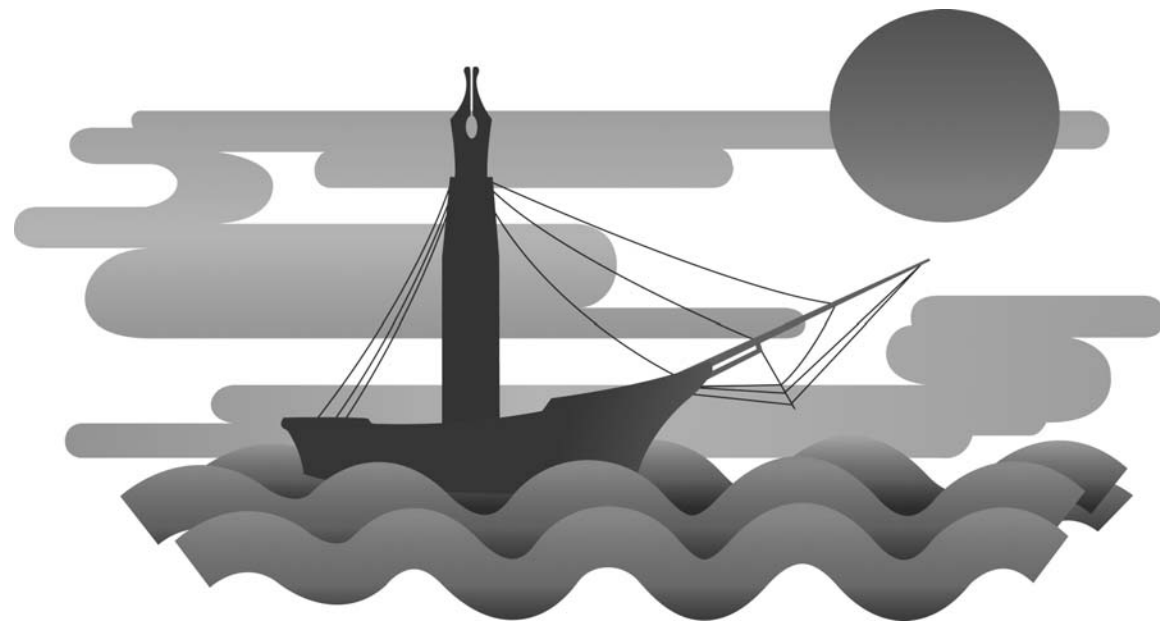


25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한 학년의 끝을 축하하기 위해 중등학교 학생들이 바다로 뛰어든다. '노리자다'(Norijada, 크레이지 데이)는 한 학년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매년 열린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